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운영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¹⁾

김운주*·유재희*·곽노선**·최은희*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충북진천교육청 장학사**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he Curriculum & Contents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Kim, Woon-Ju* · Ryu, Jae-Hee* · Kwak, Noh-Sun** · Choi, Eun-Hui*

*Dept. of Food and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instruction type and the school hours allocations for th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united on the Korean education course revised seventhly and to offer the basic materials for the efficient curriculum implementation type through proving that how are the degree of studying load of students, interest, necessity, and satisfaction and whether those are affected or not. The subject of this survey were 297 students at first grade in boys high school, girls high school, and coeducational school located in the Chungnam-Province, Taejeon Megalopolis City. The period of this survey was from 30th Sep. 2002 to 5th Oct. 2002.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implementation type of the curriculum, whole charge teaching was twice times as much as allotted teaching. 2. About half of the students(54.2%) recognized that the burden of study was less than before. More two third of students(72.4%) were satisfied with implementation of subject. The coeducational school and girls high school students were being more satisfied than the boys high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educated by allotted teaching were more satisfied. 3. The field of Home Economics was higher than the field of Technology in the degree of interest and necessity for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s. 70.8% of the respondents was satisfied for the content materials. The coeducational school and the girls high school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course content than boys high school students.

주제어(Key Words) : 「기술·가정」교과, 제7차 교육과정, 전담지도, 분담지도,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curriculum, the Korean education course revised seventhly, whole charge teaching, allotted teaching

1) 교신저자 : 김운주(kimwj2747@chungbuk.ac.kr)

I. 서 론

21세기에 진입하는 2000년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할 것을 대전제로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국가적 측면에서 개방화·국제화·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질 높은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켜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 육성이 가능하게 되었다(교육부, 2000).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교과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제 6차 교육과정의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를 「기술·가정」이라는 교과명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술·가정」관련교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실과를 시작으로 7학년(중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남녀 모든 학생이 필수교과로 이수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의 필수 이수과목 수를 10개로 제한함으로써 학습자의 부담을 줄였다는 점과 「기술·가정」교과 이수대상을 남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교육부, 2000).

「기술·가정」교과는 이미 제 5차 교육과정때 신설되어 기존의 「기술」과 「가정」교과와 함께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필수로 이수하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 교과 내용은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내용 중 일부를 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교과내용 구성상의 문제, 통합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문제, 통합교과가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즉 「기술·가정」교과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통합되었으나, 「기술」교과와 「가정」교과는 기초가 되는 배경 학문의 지식 체계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 한 명이 전담하여 지도하기가 어렵고, 과원 문제, 자격 문제 및 교과 지도 방법 등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이다.

교과 운영상의 문제나 교사의 만족감, 교과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와 필요도 등은 결국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효과적인 교과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유형별로 교과 운영 형태와 학습시간 배당 그리고 학습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연구(곽노선, 2001; 손순옥, 2002), 중학교 「기술·가정」통합교과에 대한

남·녀 학생의 필요·흥미도 분석 연구(신영순, 2002)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술·가정」교과 내용의 인식(신부용, 2002)에 관한 연구 등 대부분 중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에 그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남녀공통으로 이수하도록 확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운영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필수교과로 이수되고 있는 「기술·가정」교과의 실시현황을 조사하고, 학습자가 느끼는 부담 정도와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교과통합의 효과를 검토하는데 있다. 또한 「기술·가정」교과의 학습내용에 관한 학습자의 평가를 통해 교과내용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둔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술·가정」교과 지도 형태와 영역별 주당 학습 시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부담 정도와 교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이는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도, 필요도 및 교과내용 만족도는 어떠한가? 이는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기술·가정」교과 통합 배경

교육적 개념으로서 통합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초 Graser, Hebert, Froebel 등의 교육 사상에서 나타난 후 1970년대에 다시 교육과정의 통합 운동이 제기되면서 오늘날까지 전개되어 오고 있다(김승수, 1993; 박노선, 2001; Alberty & Alberty, 1962). 교육과정 통합(curriculum integration)은 학교에서 교육되는 지식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사이에 형성된 차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두되었으며, 교육과정의 요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리, 독립되어 있는 것들을 상호 관련짓고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의미 있는 체계로서 발전시키는 과정 내지

시도를 의미한다(김재복, 1991; Fleck, 1974; Tanner & Tanner, 1980). 광노선(2001)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통합은 사회변화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고, 지식·정보의 폭증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며, 개인의 전인적인 인격 발달을 통한 적극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또한 교과운영의 융통성 및 지식의 유용성,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과 문제 해결능력 신장 및 학습자의 학습 부담 감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교과와 「가정」교과가 통합된 「기술·가정」교과의 통합배경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제 5차 교육과정 이전까지 남학생은 기술과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등의 산업교과를, 여학생은 가정, 가사교과를 이수케 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이수과목이 구분되었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일반화되며, 핵가족화 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이수과목 구분은 적합치 않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시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남녀 공통이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술」교과와 「가정」교과를 남녀 모두에게 각각 공통필수로 이수시키는 것은 교과목 수의 증가 및 교육내용의 과다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존의 「기술」교과와 「가정」교과는 유지하면서 기술과 가정을 통합한 「기술·가정」이란 과목을 신설한 후 「기술」, 「가정」, 「기술·가정」세 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였다(전현주, 1992). 제 6차 교육과정에서도 「기술」과 「가정」 두 교과목의 학문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교사의 전문성이 다르다는 입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통합되지 않았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중학교에서는 「기술·산업」교과와 「가정」교과를, 고등학교에서는 「기술」교과와 「가정」교과를 「기술·가정」이라는 교과명으로 통합하여 남녀학생 모두 필수로 이수하게 되었다(교육부, 2000). 즉 「기술·가정」교과로 「기술·산업」교과와 「가정」교과가 통합되어 결국 기존의 실업·가정교과에 묶여 있던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및 가사 과목을 모두 통합하기에 이르렀고, 초등학교의 실과와 연계하여 남녀 공통 필수로 이수토록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기술·가정」교과의 통합을 지향하게 되었다(교육부, 2000).

2. 「기술·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선행연구

「기술·가정」교과의 운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 5차 교육과정 당시 「기술·가정」교과를 선택하여 운영하던 소수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과 운영 관련연구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인애, 1991; 김지숙, 1991; 백일순, 1992; 김승수, 1993; 김효순, 1997; 손순희, 2001; 광노선, 2001; 손순옥, 2002)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순희, 1991; 박인애, 1991; 김승수, 1993)가 있다.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운영 형태와 관련 만족도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는 주로 가정과 교사에 의해 전담지도 되고 있으며, 교과의 운영 형태는 교사의 특성보다는 주로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었고, 전담지도하는 교사는 비 전공 영역의 지식과 기능 부족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손순옥, 2002). 또한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효율적인 수업 형태는 전공 분야별로 분담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 교사와 가정 교사의 수급 인원이 같지 않아 전공 분야별 담당자가 어렵다해도 남녀의 소질과 적성 등이 크게 작용하는 조리 실습, 재봉, 자수, 제도 및 조립 등은 반드시 전공별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백일순, 1992).

김승수(1993)는 「기술·가정」교과가 일부 남녀공학중학교에서 교과 운영의 편리함 때문에 선택 운영되고 있으나, 두 교과의 병합으로 교과 내용이 미흡하여 비 전공 영역의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선택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는 등 「기술·가정」교과 통합 형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하였다. 광노선(2001)도 교사들이 학교장이나 교육 전문직에 비해 통합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었다고 하며, 김효순(1997)의 연구에서도 가정을 전공한 교사와 비전공 교사간에 학습지도 활동의 모든 면에서 자신감에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손순희(2001)는 중학교 가정과와 기술·산업과 교사의 교수 행동과 교수 만족도 연구에서 교과 지도시 「가정」을 전공한 교사가 비전공 교사에게 비해 실험·실습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교사의 자신감이 다양한 수업 방법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교과 운영 형태도 교사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려져, 중학교에서 「기술·가정」교과를 전담하여 지도하는 교사가 비전공 영역 지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낮은 양상을 보였다(손순옥, 2002). 이외에

도 「기술·가정」통합교과를 운영할 때의 문제점으로 이수시간이 부족하고, 실험 실습 기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습운영이 어려운 문제도 지적되었다(김지숙, 1991).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기술·가정」교과의 경우 현재 비전공 교사에 전담지도되는 경우가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운영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다.

3.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관한 선행 연구

「기술·가정」교과 내용과 관련된 연구도 교과운영과 마찬가지로 주로 제 5차 교육과정 시행 당시 「기술·가정」교과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정 과목 이수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은 높았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았다. 가정 교과의 영역별 필요도에서 의복의 역할, 의복의 디자인과 구성, 의생활 자원의 실태와 의류의 유통, 주택설계, 주택설비와 시설, 부모됨의 의미, 가족 계획과 인구 문제, 임신과 분만, 아동 발달의 특징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이금남, 1993). 중학교 「기술·가정」통합교과에 대해서는 남녀학생 모두 교과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었다(신영순, 2002; 신부용, 2002).

그러나 영역별 흥미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많아 여학생의 경우 기술교과에 속하는 내용에 대한 흥미도가 낮은 반면 남학생은 가정교과에 속한 내용에 흥미가 적었다(신영순, 2002; 신부용, 2002). 양순희(1991)와 박인애(1991)는 제5차 교육과정 연구결과 「기술·가정」과목에 대해 학생들이 높은 흥미도 갖고 있으나 기술 분야는 남학생이, 가정분야는 여학생이 더 높은 흥미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남녀 중학생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청소년의 영양 관리에서, 여학생은 식품의 선택과 이용이 남학생보다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황인화, 2001). 김지숙(1991)의 연구에서 일부 중학교 교사들은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일부 통합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박인애(1991)의 연구에서는 통합교과 내용 구성에 대해 학생과 교사 모두 불만족하였고, 그 이유가 주로 교

과에서 몇몇 내용만이 선별되어 깊은 내용을 학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교과 시간 배정과 짜임새 있는 교과구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적용된 첫해인 2002년 현재 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교과를 배우고 있는 1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표집은 충청남도의 시지역과 읍지역에 소재한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고등학교 6개 학교에서 2학년씩 12학급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20부가 회수되었는데 이중 무응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되었다고 판단되는 자료 23부를 제외한 29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기술·가정」교과 운영 실태와 요구, 교과 내용의 흥미도와 필요도에 관한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선행연구(신부용, 2002; 신영순, 2002; 김계순, 1993; 이금남, 1993; 박인애, 1991)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후, 가정교육 전문가 3인으로부터 타당도를 검토 받아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내용은 크게 3영역으로 조사대상 학생의 개인 및 학교 특성 8문항, 「기술·가정」교과의 운영 실태와 요구 11문항, 「기술·가정」교과 내용의 흥미도 4문항과 필요도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흥미도와 필요도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과의 학습내용 20항목에 대하여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필요도와 흥미도 항목의 Cronbach α 값은 각각 0.88과 0.89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 최종적으로 이용된 설문지는 297부였으며,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표 1〉 조사대상학생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개 인 특 성	성별	남	136	45.8	개 인 특 성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	110	40.3	
		여	161	54.2			미취업	163	59.7	
		계	297	100.0			계	273	100.0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60	20.3	재 학 중 인	학교 유형	남자고등학교	91	30.6	
		고졸	139	47.1			여자고등학교	98	33.0	
		대졸이상	96	32.5			남녀공학	108	36.4	
		계	295	100.0		계	297	100.0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81	27.5	학 교 특 성	지도 형태	기술교사 전담	128	43.1	
		고졸	170	57.6			가정교사 전담	74	24.9	
		대졸이상	44	14.9			영역별 분담	95	32.0	
	계	295	100.0		계	297	100.0			
아버지 직업	아버지 직업	생산·판매직	31	11.3	학 교 특 성	학교 위치	시지역	155	52.2	
		서비스직	103	37.6			읍지역	142	47.8	
		관리직	106	38.7			계	297	100.0	
		전문직	17	6.2			학교규모 (1학년 학급수)	6학급 이하	142	47.8
		무직·은퇴	17	6.2				7~11학급	51	17.2
	계	274	100.0	12학급 이상	104	35.0				
	계	274	100.0		계	297	100.0			

다. 분석방법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고,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 t-검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자 297명 중 남학생이 136명(45.8%), 여학생은 161명(54.2%)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아서 (아버지 47.1%, 어머니 57.6%),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관리직이 3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이 37.6%, 생산·판매직이 11.3%, 전문직 6.2%, 무직·은퇴가 6.2% 순이었다. 어머니는 전업 주부인 경우가 59.7%, 직업을 가진 경우가 40.3%로 조사대상의 약 40% 정

도가 맞벌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 조사 대상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유형은 남자고등학교 30.6%, 여자고등학교 33.0%, 남녀공학고등학교 36.4% 였으며, 52.2%는 시지역에, 47.8%는 읍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술·가정』교과를 배우고 있는 1학년 학급수 규모를 조사한 결과, 담당교사 1인이 근무 가능한 6학급 이하의 학교는 47.8%, 1인 이상 2인 미만이 근무 가능한 7학급 이상~11학급이 17.2%, 2인 이상이 근무 가능한 12학급 이상의 학교가 35.0%이었다.

2. 『기술·가정』교과 운영 인식

1) 『기술·가정』교과의 교과 지도 형태 및 학습시간 배당

조사대상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6학교의 『기술·가정』교과 학습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기술·가정』교과의 지도 형태와 학습시간 배당현황을 조사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지도 형태는 기술교사나 가정교사가 혼자서 전 영역을 가르치는 전담지도와 기술교사와 가정교사가 영

〈표 2〉 조사대상 학교유형별 「기술·가정」교과의 지도형태 및 학습시간 배당

학교유형	항 목	학교수	지도형태		학습 시간 배당
			전담지도	분담지도	
남자고등학교(시)		1	○(기술교사)		학기별 매주3시간 ¹⁾
남자고등학교(읍)		1	○(기술교사)		학기별 매주3시간 ¹⁾
여자고등학교(시)		1		○	기술1(2)시간 가정2(1)시간
여자고등학교(읍)		1	○(가정교사)		학기별 매주3시간 ¹⁾
남녀공학(시)		1		○	기술1.5시간 가정1.5시간
남녀공학(읍)		1	○(기술교사)		학기별 매주3시간 ¹⁾
전 체		6개교	4개교	2개교	

1) 학기별 매주 3시간 : 1학기 가정영역, 2학기 기술영역별로 매주 3시간씩 학습함

역별로 분담하여 가르치는 분담지도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기술·가정」교과의 지도형태를 조사한 결과 교사 1인에 의해 전담되고 있는 전담지도는 4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분담지도는 2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분담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시지역에 소재한 여자고등학교와 시지역 소재 남녀공학고등학교로 규모가 비교적 큰 곳이었으나, 가장 학교규모가 컸던 시지역 소재 남자고등학교는 분담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지도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담지도의 경우 담당교사를 살펴보면 읍지역에 소재한 여자고등학교만이 가정교사였고, 남자고등학교 2개교와 비교적 소규모인 읍지역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기술교사가 전담하고 있었다.

이는 제 6차 교육과정 당시 여학생은 가정용, 남학생은 기술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여학교에는 가정과 교사가, 남학교에는 기술과 교사가 근무하고 있던 상황에 따른 교사 수급때문으로 보이며, 「기술·가정」교과 운영이 교사의 특성보다는 학교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손순옥(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박노선(2001)은 「기술·가정」교과의 경우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가 자신의 전공 영역에 따라 영역별로 분담지도 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을 재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였다.

현재 주당 3시간씩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기술·가정」교과의 영역별 학습 시간 배당을 교과 지도 형태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분담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지역 여자고등학교와 시지역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기술영역과 가정영역을 매주 함께 배우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전담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기별로 가정영역과 기술영역을 나누어 배우고 있었는데, 1학기에 가정영역 3시간, 2학기에 기술영역 3시간을 배당하고 있었다.

2) 「기술·가정」교과 학습 부담에 대한 인식

교육부(2000)에 의하면 「기술·가정」교과는 이수 과목 수를 줄여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통합에 따라 학생들이 실제 느끼는 학습 부담 인식도를 조사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학습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54.2%으로 '매우 감소하였다' 4.4%, '감소한 편이다' 49.8%으로 조사되었으며, '감소하지 못한 편이다' 16.5%,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29.3%으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학생도 45.8%를 차지하였다. 평균점으로는 4점 만점에 2.29점에 불과하여 궁극적인 통합 취지에는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기술」과 「가정」교과가 통합되기는 하였으나 두 교과의 배경 학문

〈표 3〉 「기술·가정」교과 통합에 따른 학습 부담에 대한 인식

N(%)

학습부담에 대한 인식	매우 감소 하였다(4)	감소한 편이다(3)	감소하지 못한 편이다(2)	전혀감소하지 않았다(1)	계	평균
		13(4.4)	148(49.8)	49(16.5)	87(29.3)	297(100.0)

〈표 4〉 『기술·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

N(%)

『기술·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4)	대체로 만족한다(3)	대체로 불만족한다(2)	매우 불만족한다(1)	계	평균
	13(4.4)	202(68.0)	50(16.8)	32(10.8)		

〈표 5〉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별 교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

변인		교과 운영 만족도	N	M(SD)	통계값
학교 유형	남자고등학교		91	2.25(0.88) ^b	F = 23.973***
	여자고등학교		98	2.81(0.59) ^a	
	남녀공학		108	2.87(0.55) ^a	
	계		297	2.66(0.73)	
교과지도 형태	전담지도		202	2.55(0.77)	t = -4.325***
	분담지도		95	2.89(0.57)	
	계		297	2.66(0.73)	

***P<.001

a,b,c Duncan's multiple test결과 유의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됨

이 다르고 교과와 성적의 상이하여 영역별로 기술교사와 가정교사가 분담지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 역시 두 교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에 따라 학습부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기술·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

『기술·가정』교과와 통합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의 72.4%의 학생이 교과운영에 만족하고 있었고 그 중 '매우 만족한다'는 13명(4.4%), '대체로 만족한다'는 202명(68.0%)이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2명(27.6%)으로 '대체로 불만족한다' 50명(16.8%), '매우 불만족한다' 32명(10.8%)이었다. 만족도 평균점은 4점 기준에 2.66점이었다. 이는 양순희(1991)의 『기술·가정』교과운영에 대한 남녀 학생간의 태도 비교 연구에서 『기술·가정』통합에 대하여 남녀학생들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에 따라 교과 운영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t-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분산분석 결과 학교 유형별로 교과운영에 대한 만

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녀공학과 여자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과운영 만족도 평균점수가 각각 2.87점, 2.81점으로 남자고등학교 2.25점에 비하여 높았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를 보더라도 여자고등학교와 남녀공학은 같은 집단이고 남자고등학교는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자고등학교는 모두 기술교사에 의한 전담지도가 이루어지는 반면 남녀공학과 여자고등학교는 각각 1개교씩에서 분담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한편, 교과 지도 형태별로 교과운영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t-test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한대로 분담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평균 2.89점, 전담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평균 2.55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분담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기술·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손순옥(2002)의 연구결과인 '전담지도하는 교사의 교과운영 만족도가 분담 지도하는 교사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즉 전공교사에 의한 교과지도가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과운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지도도 전공교사에 의한 분담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

N(%)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	매우 흥미 있다(4)	흥미 있는 편이다(3)	흥미 없는 편이다(2)	전혀 흥미 없다(1)	계	평균
		5(1.7)	195(65.7)	70(23.6)		

3.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

1)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매우 흥미있다' 1.7%, '흥미있는 편이다' 65.7%로 조사대상 학생의 67.4%가 교과내용이 '흥미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흥미 없는 편이다' 23.6%, '전혀 흥미없다' 9.1%로 '흥미없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32.7%였다. 4점척도로 조사한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평균 흥미도는 2.63이었다.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해 '흥미 있다'고 인식한 200명(67.4%)의 학생에게 흥미 있는 이유를, '흥

미 없다'고 인식하는 94명(32.7%)의 학생에게 흥미 없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기술·가정」교과 내용이 흥미 있는 이유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서'라는 의견이 106명(53.0%), '생활을 개선·향상시킬 수 있어서' 36명(19.5%),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33명(16.5%), '교과 선생님의 지도방식이 좋아서' 22명(11.0%) 순으로 동의하였다. 흥미 없는 이유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36명(38.3%), '교과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25명(26.6%), '교과 선생님의 지도방식이 싫어서' 17명(18.1%),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습이 많기 때문에' 16명(17.0%)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술·가정」교과 학습 내용을 영역별 및 세부 내용별로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

〈표 7〉 「기술·가정」교과 내용 영역별 흥미도

		「기술·가정」교과 학습내용		N	Mean(SD)			
가정영역	가정생활의 설계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1. 가정 생활 문화의 변화	297	2.63(0.80)	2.83 (0.62)		
			가족생활주기와 설계	2.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설계의 이해	296		2.67(0.79)	
		결혼교육아		3. 결혼전·후의 생활 설계	297		2.97(0.79)	
			가정생활의 실제	초대계획과 행사음식의 준비	4. 결혼의 의미와 역할		297	2.93(0.83)
		5.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			296		3.08(0.79)	
		6. 임신과 출산, 아동양육			297		3.11(0.79)	
	기술영역	에너지와 수송 기술	에너지자원과 이용	7. 가정 행사의 의미와 종류	296	2.68(0.84)	2.82 (0.65)	
				자동차의 관리	8. 초대계획과 행사 음식 만들기	297		2.89(0.94)
		건설기술의 기초	건설기술		9. 상차림과 손님 접대	297		2.71(0.89)
				건설계획 및 시공	10.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297		3.11(0.81)
					건설구조물 만들기	11.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296
기술영역	에너지와 수송 기술	에너지자원과 이용	12. 에너지 자원의 종류와 이용	297		2.28(0.88)	2.37 (0.69)	
			자동차의 관리	13. 에너지의 변환과 동력 발생 장치	296	2.14(0.85)		
	건설기술의 기초	건설기술		14. 자동차의 구조	297	2.48(0.97)		
			건설계획 및 시공	15. 자동차 관리 요령	297	2.63(0.94)		
				건설구조물 만들기	16. 건설기술과 인간생활	297		2.26(0.89)
	건설구조물 만들기	건설계획 및 시공	17. 건설기술의 발달과 종류		297	2.23(0.89)		
			건설구조물 만들기	건설계획 및 시공	18. 건설계획 및 설계	296		2.35(0.93)
건설구조물 만들기	건설계획 및 시공	19. 건설 시공 및 관리			297	2.30(0.94)		
		건설구조물 만들기	건설계획 및 시공	20. 건설 구조물 모형 만들기	297	2.43(1.05)		

〈표 8〉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별 『기술·가정』 교과 내용 영역별 흥미도

변인		흥미도	N	가정생활의 설계		가정생활의 실제		에너지와 수송기술		건설기술의 기초	
				Mean(SD)	F	Mean(SD)	F	Mean(SD)	F	Mean(SD)	F
학교 유형	남자고등학교		91	2.92(0.71)	0.075	2.71(0.71)	4.233*	2.52(0.78)	17.834***	2.64(0.73)	14.693***
	여자고등학교		98	2.90(0.62)		2.73(0.69)		1.86(0.74)		2.10(0.72)	
	남녀공학		108	2.88(0.56)		2.95(0.56)		2.25(0.76)		2.43(0.64)	
	계		297	2.90(0.66)	2.80(0.66)	2.21(0.80)	2.38(0.73)				
교과 지도 형태	기술교사전담가		128	2.93(0.68)	1.677	2.81(0.67)	0.024	2.42(0.78)	10.734***	2.59(0.71)	11.615***
	정교사전담영역		74	2.97(0.60)		2.79(0.70)		1.90(0.72)		2.11(0.67)	
	별분담		95	2.80(0.57)		2.81(0.61)		2.16(0.81)		2.31(0.72)	
	계		297	2.90(0.66)	2.80(0.66)	2.21(0.80)	2.38(0.73)				

* P<.05 ***P<.001

다. 영역별로는 가정영역이 평균 2.83점으로 기술영역 2.37점보다 흥미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소분류에서도 가정영역은 모두 2.5이상이었으나, 기술영역은 '자동차 관리'를 제외하고 모두 2.5이하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를 분석한 신영순(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평균이 3.0점 이상으로 매우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교과 내용은 '결혼과 육아'(3.04)였다. 평균이 2.5~3.0 미만으로 중간 수준인 교과 내용은 가정영역 중 '주거 공간 꾸미기(2.87)', '가족 생활 주기와 설계(2.82)', '초대계획과 행사음식의 준비(2.76)', '가정생활 문화의 변화(2.63)'와 기술 영역 중 '자동차의 관리(2.56)'였다. 기술영역의 '건설 구조물 만들기(2.43)', '건설계획 및 시공(2.33)', '건설기술(2.25)', '에너지 자원과 이용(2.21)'에 관한 내용은 평균이 2.5이하로써 흥미도가 매우 낮았다. 이는 기술 영역에서 산업의 전문야를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 광범위하고 이론적인 학습을 주로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8〉에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별로 『기술·가정』교과의 영역별 흥미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산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 유형에 따라 '가정생활의 실제', '에너지와 수송 기술', '건설기술의 기초' 영역에 대한 흥미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영역인 '가정생활의 실제' 영역은 남녀공학 학생들의 흥미도가 2.93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기술영역인 '에너지와 수송 기술'과 '건설기술의 기초' 영역의 흥미도는 남자고등학교, 남녀공학, 여자고등학교의 순서로 높았다.

즉 기술교사가 전담지도하고 있는 남자고등학교에서 기술영역에 대한 흥미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중학생의 『기술·가정』교과 내용의 인식 연구에서 성별 흥미도 차이가 나타난 신영순(2002)과 신부용(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교과 지도 형태별로 영역별 흥미도 점수는 가정영역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기술영역인 '에너지와 수송기술', '건설기술의 기초' 영역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영역 모두 기술교사가 전담(영역별 분담)가정교사 전담의 순서로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기술영역에서 기술을 전공한 교사에 의한 지도가 이루어질 때 학생들이 내용에 대한 높은 흥미도를 갖게 된다.

손순옥(2002)은 비전공 교사에 의한 지도가 교사에게 비전공 영역에 기능과 지식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느끼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본 연구결과와 비추어보면 교사가 비전공 영역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와 불만족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2)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필요도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227명(75.4%)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경우도 73명(24.6%)이었다. 그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8명(9.4%), '필요한 편이다'는 196명(66.0%)이었으며, '필요없는 편이다'는 56명(18.9%), '전혀 필요없다'는 17명(5.7%)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평균점으로

〈표 9〉 「기술·가정」교과 내용 영역별 필요도

		「기술·가정」교과 학습내용		N	Mean(SD)		
가정영역	가정생활의 설계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1. 가정 생활 문화의 변화	294	2.78(0.73)	3.06 (0.49)	
			가족생활주기와 설계	2. 가족생활주기와 생활 설계의 이해	296		2.98(0.68)
				3. 결혼전·후의 생활 설계	296		3.17(0.68)
		결혼과 육아	4. 결혼의 의미와 역할	297	3.19(0.70)		
			5.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	296	3.33(0.72)		
			6. 임신과 출산, 아동양육	296	3.41(0.69)		
	가정생활의 실제	초대계획과 행사음식의 준비	7. 가정 행사의 의미와 종류	297	2.77(0.75)	2.84 (0.58)	
			8. 초대계획과 행사 음식 만들기	297	2.85(0.82)		
			9. 상차림과 손님 접대	297	2.86(0.82)		
		주거공간 꾸미기	10.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297	3.05(0.80)		
			11. 직물을 이용한 생활 용품 만들기	297	2.64(0.86)		
			12. 에너지 자원의 종류와 이용	297	2.43(0.86)		
기술영역	에너지와 수송기술	에너지자원과 이용	13. 에너지의 변환과 동력 발생 장치	297	2.32(0.84)	2.57 (0.79)	
			14. 자동차의 구조	297	2.63(0.86)		
		자동차의 관리	15. 자동차 관리 요령	297	2.89(0.84)		
	건설기술		16. 건설기술과 인간생활	297	2.48(0.87)		2.41 (0.65)
		17. 건설기술의 발달과 종류	296	2.36(0.81)			
		건설 계획 및 시공	18. 건설계획 및 설계	296	2.51(0.86)		
19. 건설 시공 및 관리	297		2.44(0.90)				
건설구조물 만들기	20. 건설 구조물 모형 만들기	297	2.34(0.95)				

산출한 값은 2.77로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필요도는 흥미도보다 약간 높았다.

〈표 9〉는 「기술·가정」교과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교과 학습 내용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가를 조사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교과 내용 중 가정영역(평균 2.95)보다는 기술영역(2.49)에서 필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가정영역의 경우 활용도가 높은 반면 기술영역은 교과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술·가정」교과 영역 중 평균이 3.0 이상으로 나타난 교과내용은 10개 소영역 중 '가족생활주기와 설계'(3.08), '결혼과 육아'(3.31) 영역으로 모두 가정영역에 속하였다. 평균이 2.5~3.0미만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내용은 가정영역 중 '주거 공간 꾸미기'(2.85), '초대계획과 행사음식의 준비'(2.83), '가정 생활 문화의 변화'(2.78)였으며, 기술 영역의 '자동차의 관

리'(2.76)였다. 평균이 2.5이하로써 다른 영역에 비해 필요도가 낮다고 응답한 학습 내용은 기술영역 중 '건설계획 및 시공'(2.48), '건설기술'(2.42), '에너지 자원과 이용'(2.38), '건설 구조물 만들기'(2.34) 순이었다.

〈표 10〉은 「기술·가정」교과의 내용 영역별 필요도가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학교유형에 따라 「기술·가정」교과의 영역별 필요도는 남녀공학의 학생들이 남자고등학교나 여자고등학교의 학생보다 '가정생활의 실제' 영역의 필요도를 높게 피력하였고, '에너지와 수송기술', '건설기술의 기초' 영역은 남자고등학교와 남녀공학의 학생들이 여자고등학교의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기술·가정」교과 통합교육의 필요성의 남녀 차이를 조사한 신영순(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표 10〉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별 「기술·가정」교과 내용 영역별 필요도

변인	내용필요도	N	가정생활의 설계		가정생활의 실제		에너지와 수송기술		건설기술의 기초	
			Mean(SD)	F	Mean(SD)	F	Mean(SD)	F	Mean(SD)	F
학교 유형	남자고등학교	91	3.07(0.56)	1.403	2.74(0.58)	6.988***	2.53(0.84)	9.567***	2.60(0.69)	5.886**
	여자고등학교	98	3.19(0.42)		2.74(0.63)		2.10(0.79)		2.34(0.66)	
	남녀공학	108	3.16(0.50)		3.00(0.50)		2.50(0.71)		2.62(0.58)	
	계	297	3.14(0.50)		2.83(0.58)		2.38(0.80)		2.52(0.65)	
교과 지도 형태	기술교사전담	128	3.13(0.54)	1.107	2.83(0.57)	.731	2.56(0.81)	6.792***	2.62(0.67)	4.418**
	가정교사전담	74	3.21(0.43)		2.78(0.59)		2.17(0.79)		2.34(0.68)	
	영역별분담	95	3.11(0.47)		2.89(0.60)		2.29(0.75)		2.52(0.59)	
	계	297	3.14(0.50)		2.83(0.58)		2.38(0.80)		2.52(0.65)	

P<.01 *P<.001

〈표 11〉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N(%)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한다(4)	대체로 만족 한다(3)	대체로 불만족 한다(2)	매우 불만족 한다(1)	계	평균
		7(2.4)	203(68.4)	56(18.9)	31(10.4)	297(100.0)

있다.

교과지도 형태별도 필요도 인식에 차이를 보여 기술교사가 전담지도 하는 경우 기술영역인 '에너지와 수송기술', '건설기술의 기초' 영역에 대한 필요도를 학생들이 높게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표 8〉의 교과 지도 형태별 흥미도와 같은 양상을 보여 전공교사에 의한 지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225명(75.4%)의 학생과 '필요 없다'고 인식하는 73명(24.6%)의 학생들에게 각각 필요한 이유와 불필요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기술·가정」교과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서'라는 의견에 122명(54.2%)이 응답하여 가장 중요한 이유로 채택되었고, 그 다음은 '서로 모르는 영역의 지식습득의 기회가 되어서' 66명(29.3%),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알 수 있어서' 19명(8.4%), '생활을 개선·향상시킬 수 있어서' 18명(8.0%) 순으로 동의하였다. 「기술·가정」교과 내용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실습기회가 적고 매우 이론적이기 때문에'가 가장 많은 46명(63.0%)의 응답을 보였고, '학교에서 꼭 배우지 않아도 가정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으므로'가 19명(26.0%), '직업생활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5명(6.8%), '가사 작업의 기계화로 지식과 기능이 별로 필요가 없으므로' 3명(4.1%) 순이었다.

3)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 11〉와 같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해 70.8%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29.3%였다. 평균점으로 산출한 만족도는 2.63으로 필요도(2.77)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에 따라 교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2).

분석결과 학교유형에 따른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과 내용 만족도 점수는 남녀공학 평균 2.79점, 여자고등학교 평균 2.63점, 남자고등학교 평균 2.4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Duncan test 결과를 보더라도 남녀공학과 여자고등학교는 동질적 집단으로, 남자고등학교는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공학, 여자고등학교는 분담지도 형태와 전담지도 형태가 각각 1개교씩 있었으나, 남자고등학교는 2개교 모두 기술교사가 전담지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다.

교과 지도 형태별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만족도 평균점수는 영역별 분담 2.71점, 가정교사 전담 2.69점, 기술교

〈표 12〉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별 「기술·가정」교과내용에 대한 만족도

교과내용 만족도		N	Mean(SD)	F
학교 유형	남자고등학교	91	2.43(0.83) ^b	6.710***
	여자고등학교	98	2.63(0.62) ^a	
	남녀공학	108	2.79(0.61) ^a	
	계	297	2.63(0.70)	
교과지도 형태	기술교사전담	128	2.53(0.78)	2.092
	가정교사전담	74	2.69(0.62)	
	영역별분담	95	2.71(0.63)	
	계	297	2.63(0.70)	

***P<.001

a, b Duncan's multiple test결과 유의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됨

사 전담 2.53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기술·가정」교과를 기술교사와 가정교사가 영역별로 분담지도 할 때 학생들의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209명(70.8%)의 학생과 불만족하다고 여기는 80명(29.3%)의 학생에게 각각 만족 및 불만족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만족하는 이유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구성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108명(51.7%)이 응답하여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었고, 그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남녀 학생이 동등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 52명(24.9%), '가정영역과 기술영역 내용이 대체로 고루 편성되었기 때문' 49명(23.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불만족 하는 이유로는 '좀더 깊은 내용을 학습할 수 없어서'가 가장 높은 응답 35명(43.7%)을 나타내었고, '기술과 가정교과에서 몇몇 내용만 선별되었기 때문에' 28명(35.0%), '교과 내용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습이 많기 때문에' 17명(21.3%) 순으로 동의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필수교과로 이수되고 있는 「기술·가정」교과의 실시현황을 조사하고, 학습자가 느끼는 부담정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교과통합의 효과를 검토하고, 학습내용의 평가를 통해 교과내용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술·가정」교과의 지도 형태와 학습 시간 배당, 학습자의 학습 부담정도, 교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도, 필요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학교의 「기술·가정」교과 지도 형태는 기술교사 또는 가정교사가 전영역을 지도하는 전담지도의 경우 4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술교사와 가정교사가 나누어 가르치는 분담지도는 비교적 규모가 큰 2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분담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술영역과 가정영역을 함께 주당 3시간씩(기술1시간/가정2시간 또는 기술2시간/가정1시간, 각각 1.5시간씩)지도하고 있는 반면, 전담지도의 경우 학기별로 영역을 나누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에 대해 54.2%의 학생이 교과통합에 따라 학습부담이 감소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유형과 교과 지도 형태는 학습 부담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기술·가정」교과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72.4%의 학생이 교과운영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여자고등학교와 남녀공학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남자고등학교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영역별로 분담지도 하는 경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현재의 교과 운영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습득의 좋은 기회'(67.1%)이기 때문이었고, 가장 불만족하는 이유는 '실습기회가 적고, 교과내용이 어려워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54.1%)였다.

셋째, 「기술·가정」교과내용 영역별 흥미도는 가정

영역이 기술영역보다 높았다. 남녀공학의 학생들이 '가정생활의 실제' 영역에서 흥미도가 높았고, 기술영역은 남자고등학교 학생이 높은 흥미도를 보였다. 기술 교사가 기술영역을 전담지도한 경우 가정교사가 지도하는 것보다 높은 흥미도를 보였다. 높은 흥미도를 보인 소단원은 가정영역에서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임신과 육아' 단원이었으며 기술영역은 '자동차의 관리', '건설 구조물 모형 만들기' 단원이었다. 『기술·가정』교과 내용 영역별 필요도도 가정영역이 높았으며, 필요도가 높았던 소단원으로는 가정영역의 '결혼과 육아', '가족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단원이 있었고, 기술영역의 '자동차의 관리', '건설기술의 시공원리', '에너지 자원의 종류와 이용'이었다. 내용별로 '가정생활의 실제'에서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필요도를 높게 응답하였고, 기술영역에 대해 남자고등학교와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필요도가 높았다. 기술영역인 '에너지와 수송기술', '건설기술의 기초'는 기술교사가 전담지도할 때 필요도가 높았다.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해 70.8%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하는 이유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구성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가장 많았다 (51.7%).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더 깊은 내용을 학습할 수 없어서'(43.7%)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11, 12 학년에서 이수토록 편성되어 있는 심화선택교과와의 연계지도가 요망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가정』교과 학습 부담과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과 지도 형태이다. 이는 학교 유형에 따라 결정되어 남자고등학교는 기술교사가, 여자고등학교는 가정교사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과 교사나 기술과 교사에 의한 전담 지도시 기술영역과 가정영역의 학습 시간 배당이 균등하지 않고, 비전공 영역 수업으로 인해 기술이나 가정영역의 수업이 소홀해 질 염려가 있으며, 나아가 교과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가정』교과는 실제적으로 영역별 분담지도가 가능하도록 시수 조정과 전공별로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영역별 분담 지도가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순회교사 제도의 취지를 살려 영역별 분담 지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흥미도와 필요도 및 만족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도와 필요도는 기술영역인 에너지와 수송기술, 건설기술의 기초 보다 가정영역인 가정생활의 실제, 가정생활의 실체가 모두 높았다. 가정영역의 높은 흥미도와 필요도는 학교 유형과 지도 형태에 따라 차이가 없이 모든 남녀 고등학생들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는 다르게 기술영역에 대한 흥미도와 필요도 인식은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두 하위영역 모두에서 다른 학교 유형 학생들보다 낮았으며, 가정교사가 전담하는 경우도 이와 같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여학생들의 흥미와 필요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기술·가정』교과 전반에 대한 내용 만족도는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 유형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술영역의 내용을 밝혀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접 수 일 : 2003년 7월 25일

□ 심사종료일 : 2003년 9월 22일

참 고 문 헌

- 곽노선(2001). 기술·가정 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의 인식과 요구 및 관련 변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김계순(1993). 제6차 중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 대한 남녀중학생의 학습 요구도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수(1993). 중학교 기술·가정 통합교과의 교육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복(1991).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서울: 교육과 학사.
- 김지숙(1991).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순(1997).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가정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 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교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애(1991). 기술·가정 통합교과 내용 구성에 대한

- 인식도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일순(1992).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통합에 따른 남녀 학생들의 학습결과 비교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순옥(2002).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운영형태와 관련 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순희(2001). **중학교 가정과와 기술·산업과 교사의 교수 행동과 교수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부용(2002). **중·고등학생의 제 7차 기술·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순(2002). **중학교 기술·가정 통합교과에 대한 남·녀 학생의 필요·흥미도 분석**.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희(1991). **기술·가정 교과운영에 대한 남녀 학생간의 태도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남(1993). **고등학교 가정과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과영역별 필요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현주(1992).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교육내용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화(2001).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berty, H. B. and Alberty, E. J. (1962). *Reorganizing the high-school curriculum*.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East, M.(1980). *Home Economics: Past, present, and future*. Boston, MA: Allyn and Bacon, Inc.
- Fleck, H. (1974). *Toward better teaching of Home Economics(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Tanner, D. and Tanner L. N. (1980).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into practi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필수교과로 이수되고 있는 「기술·가정」교과의 실시현황을 조사하고, 학습자가 느끼는 부담정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교과통합의 효과를 검토하고, 학습내용의 평가를 통해 교과내용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충청남도과 대전광역시 소재한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고등학교 6개교(각 2학급씩) 1학년 297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술교사 또는 가정교사가 전 영역을 지도하는 전담지도는 4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술교사와 가정교사가 나누어 가르치는 분담지도는 비교적 규모가 큰 2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분담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술영역과 가정영역을 함께 주당 3시간씩(기술1시간/가정2시간 또는 기술2시간/가정1시간, 각각 1.5시간씩)지도하고 있는 반면, 전담지도의 경우 학기별로 영역을 나누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학생의 54.2%가 교과통합에 따라 학습부담이 감소하였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교과운영에 대해 72.4%가 만족하였다. 여자고등학교와 남녀공학고등학교 학생과 분담지도 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만족하는 주 이유는 '미래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습득의 좋은 기회'(67.1%)이었고, 불만족 이유는 '실습기회가 적고, 교과내용이 어려워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54.1%)였다. 셋째, 교과내용 영역별 흥미도는 전반적으로 가정영역이 높았다. 가정영역의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임신과 육아' 단원과 기술영역의 '자동차의 관리', '건설 구조물 모형 만들기'가 흥미도가 높은 소단원이었다. 내용 영역별 필요도도 가정영역이 높았으며, 가정영역의 '결혼과 육아', '가족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단원과, 기술영역의 '자동차의 관리', '건설기술의 시공원리', '에너지 자원의 종류와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기술·가정」교과 내용에 대해 학생의 70.8%가 만족하였는데, 그 이유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 구성이기 때문'(51.7%)이었다.